

함평군, 인구감소 위기 극복 '생활인구' 강화한다

1분기 46만명·2분기 65만명 증가세 자체 행사로 지역 관광객 확대 집중 2025년 월 20만원 출생아 기본수당 청년주택 조성 등 6개 사업에 72억

함평군이 생활인구 및 체류인구를 포함한 정주민 확대를 위해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관내 생활인구는 1분기에만 46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4~5월 함평 나비대축제가 열린 기간까지 포함한 2분기 기준으로는 약 65만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체류인구는 주민등록인구(3개월 기준 약 9만명)의 6배가 넘는 약 56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도입된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인구(통근·통학·관광 등을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 외국인을 포함하는 인구 개념이다.

정주민구뿐 아니라 실제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군은 체류인구 증가를 위해 선행돼야 할 것으로 군 자체 행사를 통한 지역 관광객 확대를 꼽고 있다.

'축제의 고장'으로 알려진 함평군은 20여년이 넘도록 매년 봄 '나비대축제'와 가을 '대한민국 국향대전'이라는 매머드급 축제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어 올해는 '겨울밤 빛축제'를 처음으로 선보이며 사계절 공백없는 축제의 고장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연간 총 4개의 굵직한 축제가 진행되면서 올해 함평군 체류인구 수는 보다 더 높게 집계될 것으로 예측된다.

생활인구 유치와 함께 군은 정주민을 위한 정책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함평군은 내년부터 1~18세의 지역 출생아에 대해 월 20만원의 출생 기본수당을 지원한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진행 중인 △청년 스트리트캡스 조성사업(청년창업지원) △청년상회(청년 창업 푸드라운지) 조성사업 △청년주택 조성사업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나산강 생태야영장 조성사업 △근로자 주거복지센터 건립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만 내년 총 7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 중 군민 만족도가 높은 교육·복지·보훈 분야 주요 사업들의 경우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등 점진적으로 수혜 정도를 확대·개편해 나갈 전망이다.

특히 인재양성장학금의 경우 대학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방식을 없애고 지역 구분 없이 등록금 실납부액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이는 전남 지자체 최초 사례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생활인구 중에서도 각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체류인구"라며 "앞으로 함평군은 한 분이라도 우리 지역에 찾아오고 하루라도 더 머무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취약주민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장성군, 2025년 2월까지

장성군이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취약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

10일 장성군에 따르면 보건소 방문간호사와 보건지소·진료소 직원 30여명이 가정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혈당·혈압 측정, 건강상담, 한파대비 행동요령 전파, 한랭질환 응급처치법 교육 등을 실시한다.

연세가 높고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650명에게는 발열덮신, 넥워머, 파스 등으로 구성된 방한용품 꾸러미를 제공하고 한파특보 발효 시 전화·방문을 통해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기온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 고령자 등 건강취약주민 지원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평소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함평군, 18일까지 신청

함평군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2025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오는 18일까지 지난해보다 30명이 늘어난 총 187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노인공익활동사업(1620명), 노인역량활용사업(190명), 공동체사업단(60명)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부터는 직역연급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공익활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기회가 더욱 확대됐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근로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이다.

선발은 보건복지부의 선발 기준에 따라 소득 수준, 활동 역량,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진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청 기간 읍면사무소나 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2025년 1월2일 개별 통보되며 선발된 어르신들은 함평군 읍면사무소와 함평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자긍심과 삶의 활력을 제공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특이민원 대비 경찰합동 모의훈련 장성군청 1층 민원봉사과

장성군이 최근 장성경찰서와 합동으로 군청 1층 민원봉사과에서 '하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10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공무원의 상황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발생, 폭언 중단 및 가해 민원인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휴대용 보호장비로 상담 내용 녹음,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및 진정, 출동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특이민원 대비훈련을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의 안전을 상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빅(big)3' 이벤트 담양군, 답례품 추가 증정

담양군은 크리스마スイ브인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제6회 산타축제를 기념해 고향사랑기부제 '빅(big)3'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3가지로 구성되며 12월 한 달간 진행된다.

먼저 기간 내 담양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추첨을 통해 답례품을 추가 증정하는 '답례품 추가 증정 이벤트'와 함께 11월 모금을 개시한 담양군 지정기부에 참여한 기부자에 추가 답례품을 증정하는 '꼭 짚어 기부!'를 운영한다.

해당 이벤트들은 기부 후 답례품을 신청한 기부자라면 자동 응모된다.

이어 축제 기간인 24일과 25일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에 방문한 올해 기부자는 톨렛을 돌리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톨렛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담양=신재현 기자



최근 장성군 관계자들이 장성경찰과 합동으로 군청 민원봉사실에서 특이 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펼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9118농가 대상

장성군이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순차 지급'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기본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소농직불

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접수 및 방문 신청을 받은 장성군은 11월까지 농업인·농지자격 검증, 직불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필요절차를 거쳤다.

이후 최종 지급대상 9118농가를 확정해 지난 9일부터 소농직불 3983농가 52억원, 면적직불 5135농가 99억원을 지급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나주시, 배달앱 '떡깨비' 쿠폰 증정 이벤트

1만5000원 이상 구매 시

나주시가 전남도 공공배달앱인 '떡깨비' 이용 고객을 위한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열흘간 떡깨비 앱을 통해 1만5000원 이상 주문 또는 포장 시 1일 3회에 걸쳐 5000원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하루 3번을 1만5000원 이상 구매할 시 총 1만5000원 할인쿠폰이 주어지는 셈으

로, 저렴한 가격에 배달 및 포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000원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떡깨비는 전남도와 도내 22개 시군, ㈜떡깨비가 협력해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으로 지난 2022년 7월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배달 중계 수수료가 1.5%로 타 기업 배달앱 수수료(6~27%)에 비해 저렴하고 가입비, 광고비가 없어 가맹점주의 경

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떡깨비는 나주사랑카드도 결제할 수 있다. 충전 시 10% 선행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더하면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은 더욱 크다.

앱 설치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떡깨비'를 검색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떡깨비를 적극 애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연말에 이어 2025년에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할인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